FX Market Daily

2025-04-17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20원 상승한 1,426.70원에 마감

1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.20원 상승한 1,426.70원에 마감했다.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.50원 상승한 1,429.0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부터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에 하락세를 보였다. 1,423.40원에서 하단을 확인한 이후 환율은 상승 전환하여, 1,426.7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8.6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001.98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429.00	1432.00	1414.20	1426.70	1427.40
엔화	995.00	1007.20	989.97	1005.22	-
유로화	1608.16	1628.29	1605.67	1625.91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17	-6.73	-14.97	-28.98
결제환율(수입)	-0.92	-5.87	-13.18	-25.61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달러화 약세에...1,41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7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426.70) 대비 10.95원 하락한 1,413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금일 환율은 글로벌 약달러와 연동되며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3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.4% 상승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. 3월 소비 증가의 상당 부분이 관세로 인한 사재기에서 비롯되었기에,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.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여파로 연준의 이중책무(최대고용, 물가안정)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,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했다. 또한 연준 개입을 의미하는 '연준 풋'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. 달러화는 미국 소비 데이터 호조에도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및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 0.89 하락한 99.27을 기록했다. 한편 중국 1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5.4% 성장했으며, 3월 소매판매가 5.9% 증가했다. 위안화는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에 강세를 보였다. 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 및 위안화 강세에 연동하여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출업체의 매도 물량 유입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
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에 환율의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금일 예정된 금통위 금리 결정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판단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08.80 ~ 1419.8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4577.2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.95원↓
	■ 美 다우지수 : 39669.39, -699.57p(-1.73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12.4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0659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